전주 도약·시민 생활 편의 예산 확보 '강행군'

우범기 시장, 국회 방문 기재부 예산실·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예결위원 등에 지원 건의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발전을 위해 '국회 예결위원, 기재부 예산실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 강행군을 펼치며 국가예산 지원에 온힘을 쏟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발전을 위해 '국회 예결위원, 기재부 예산실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 강행군을 펼치며 국가예산 지원에 온힘을 쏟았다.

우범기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결위원, 기재부 예산실장 등 기재부 핵심인사, 지역 연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시 주요사업들의 예산반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22일 건의했다.

예산국회가 시작한 지난 4일 국회를 찾은 우 시장은 예산 심의를 맡은 우원식 예산결산위원장과 국회 예결위원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요사업 소관 상임위 의원 등을 상대로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바도 있다.

우 시장은 먼저 기획재정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김완섭 예산실장 등 기재부 예산실 간부 공무원을 만나 전주시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단계 증액 요청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요청했다.

우 시장은 또 김성환 정책위의장(서울 노원구병)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등을 만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주시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예산 증액을 위해 시의 주력사업에는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90억), 국립어린이 무형유산 전당 건립(23억),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2억),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40억),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83억),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35억),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사업(9억),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117억), 전주 드론인프라 구축사업(6억),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이전 신축 사업(52억)' 등을 구축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기조가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건전재정'으로 전환된 만큼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심의상황'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예산심사가 끝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회와 기재부 관계자를 끊임없이 만나고 설득하겠다"며 "전주의 더 큰 도약과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주요 사업들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예산 확보, 증액 및 삭감 방지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설공단은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고고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

전주시설공단, 고고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고고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경영지원부를 주축으로 공단 직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SNS에 올리고 다음 도전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도전을 이어갔다.

직원들은 '양치컵 사용하기, 나무식기 사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손수건 사용하기, 에코백 사용하기, 라벨 없는 제품 구매하기, 종이 커피박 수거함 사용하기' 등 환경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인증하며, 지속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고고 챌린지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시작한 캠페인이다.

생활 속에서 한 가지를 거절하고, 한 가지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환경부는 샴푸 대신 샴푸바, 일회용 생리대 대신 면생리대와 생리컵,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 일회용 플라스틱 백 대신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 등을 제안했다.

이정주 경영지원부장은 "공단 각 부서별로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기, 회의자료로 이면지 사용하기 또는 종이 없는 회의 진행하기 등 친환경 사무실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겨울철 3대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됨에 따라 김장수 완산소방서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 3대 난방용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3대 난방용품'이란 전류의 발열작용을 이용하는 '전기장판(전기히터)'과 배관 동파를 막기 위한 '전기열선', 화목을 원료로 온수·증기를 발생시키는 '화목보일러'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는 전기장판이 2,441건, 화목보일러 1,745건, 전기열선 1,598건 순으로 발생해 겨울철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알리고 있다.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KC마크 확인, 사용 전 전선 파열 확인, 온도조절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이며, '전기열선'의 경우 '열선에 충격을 주거나 겹쳐서 사용 금지, 열선 주위 가연물 제거, 내용연수가 지난 열선 교체, 제품 훼손이나 전원 코드 이상 여부' 확인하기이다. 또 '화목보일러'는 가연물-보일러 간 2m이상 떨어뜨리며,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지정된 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김영태 기자

전주맛배달 인기 '고공행진'

전주시 공공배달앱 누적 매출액 30억원 돌파

전주시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은 꾸준히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며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서비스를 시작한 '전주맛배달'이 8개월 여 만에 40,000 가입자와 3,000개 가맹점, 누적 매출액 30억 원을 넘어서며 지역 내 소상공인·소비자 상생의 경제모델로 성장했다고 22일 전했다.

전주맛배달은 중개수수료·가입비·광고비 등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세 가지 수수료가 없고, 소비자에게는 전주사랑상품권 전주맛배달 연동을 통한 10% 캐시백 혜택 등이 제공되는 소상공인·소비자 상생 플랫폼이다.

또 전주맛배달은 '전북은행, 전북현대모터스FC, 전주가맥축제, 전주MBC, 전북투어패스' 등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진행되는 배달비 지원, 방문포장 할인 이벤트, 사진리뷰 이벤트 등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11월에는 전국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전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식비 지원 이벤트를 하는 등 꾸준한 홍보 이벤트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주맛배달은 방문포장 이벤트를 진행해 높은 배달비 부담을 덜어주고, 다회용기 사용 인증 시 추가 혜택을 주는 등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시는 전주맛배달과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 전주(라이브커머스, 온라인스토어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등)와 협업해 전주맛배달앱 가맹정 가입을 지원하고 썸네일로고 제작지원, 메뉴사진 촬영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펼쳤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맛배달이 지역 내 소상공인·소비자 상생의 플랫폼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중개수수료·가입비·광고료 '3무(無)' 정책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소방차 길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앞으로 소방 출동 시 불법 주·정차 등 장애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을 강화될 방침이다.

김현철 덕진소방서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대장 등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현장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조치 강화하겠다는 특별조치다.

특히 출동 중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파손 후 통행,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은 강제견인·이동, 피양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매달 관내 주요 상습정체구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며,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 중이다.

/김영태 기자

제3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참여 업체 모집

전주시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원산업박람회가 내년 봄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내년 5월 전주월드컵광장에서 '제3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박람회의 주제를 '정원테라피'로 정하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정원에서의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는데 목표를 두고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박람회에서는 또 정원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의 전시·판매도 이뤄지고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식물소재·재료소재·시설물 및 장비소재(작업도구 포함)·예술장식 및 기타소재로 구분하여 참여업체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00여 개 업체를 정원산업전 전시·판매업체로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과 서신동 일원에서 '2022 꽃심,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80개 업체가 참가해 전시·판매하는 정원산업전을 펼쳤으며, 작가정원 등 아름다운 정원 전시가 이뤄졌고 '정원토크쇼, 요리사의 정원, 한뼘정원 조성' 등 다양한 정원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전주시 녹지정원과 관계자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단지 정원 식물을 모아놓은 전시회가 아니라 다양한 정원소재 업체가 참여해 정원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자리"라며 "내년에 개최될 제3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도 다양한 정원 소재 업체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